

농식품부, 청년 손잡고 농촌관광 혁신

농촌 지역자원 결합한 체험 콘텐츠 본격 개발 착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9일 충북 옥천군 향수뜸마을에서 '청년참여형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을 비롯해 사업에 선정된 전국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와 참여 청년,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청년 인력을 연계해 지역 자원과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을 매칭해 농촌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정된 마을은 ▲무궁화마을 ▲향수뜸마을 ▲왕대실마을 ▲학수고대마을 ▲소갈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곳이다. 이들 마을은 힐링형, 식도락형 등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충남 당진 왕대실마을에는 로컬 콘텐츠 기획 경험을 보유한 청년이, 강원 홍천 무궁화마을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기획·운영 경험자가 참여한다. 경북 칠곡 학수고대마을에는 인문학 콘텐츠 개발 경험

자가, 제주 소갈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교육 콘텐츠 기획 및 마을 활동 경험을 가진 청년이 선정됐다. 충북 옥천 향수뜸마을에는 농업 장업을 준비하며 치유농업과 제빵을 공부하는 청년이 참여한다.

청년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SNS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체험 상품 브랜딩 등에도 참여해 기존 농촌관광 상품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향수뜸마을 관계자는 "역량

있는 청년들과 협업을 통해 농촌체험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젊은 세대도 찾고 싶은 농촌마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수고대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한 청년은 "농촌이 가진 고유한 자원과 이야기를 청년의 시각으로 새롭게 풀어내고 싶었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홍보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플랫폼(OTA) 연계 등을 통해 청년 주도의 농촌관광 상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농촌마을의 고유한 자원이 만나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식품부 전경

농진원,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 가동

'시원한 옷차림 실천 운동' 조기 시행 업무 효율과 탄소중립 실천 함께 추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이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농진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되고 전력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절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내 냉방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복도 조명의 절반을 소등하는 등 전력 사용량 감축에 나선다. 또한 옥외 전광판 운영 시간을 제한해 밤 11시부터 일출 시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냉방 기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시원한 옷차림' 실천 운동도 예년보다 약 한 달 앞

당겨 시행한다. 임직원들은 재킷과 넥타이 대신 가볍고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본부장과 부서장 등 관리자들이 먼저 참여해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에 앞장설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노출이나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 복장은 자제하도록 했다.

농진원은 외부 회의와 행사에서도 '시원한 옷차림' 실천 운동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수막과 홍보물 등을 활용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자원안보 위기 상황이 해제된 이후에도 에너지 절약 활동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이석형 원장은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농진원 회의 모습 (원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시원한 옷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농관원,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미표시 47개 업체,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불철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염소고기 오리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7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불행택을 맞아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7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염소고기 관련 17곳, 오리고기 관련 56곳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26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47곳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염소·오리고기 전문음식점과 뷔페, 전통시장,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전국 1만7000여 개소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호주·몽골산 염소고기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개 업체에는 총 13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부정부패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또한 한국오리협회와 협업체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87명이 단속 현장에 참여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이화명나방' 피해 최소화, 예찰과 제때 방제 중요

5월 중하순경부터 발생해 점차 밀도 높아져

농촌진흥청(정장 이순돈)은 본격적인 모내기 시기를 앞두고 논에서 발생해 벼에 피해를 주는 이화명나방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이화명나방은 풀명나방과에 속하는 주요 벼 해충으로, 벼의 어린잎에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부화한 유충은 초기에는 잎을 갉아 먹다가 점차 줄기 속으로 침입해 생육에 큰 피해를 준다.

이 해충은 연 2회 발생하는데, 1회기는 보통 모내기 시기(성충 발

생기), 2회기는 벼 출수가 진행되는 늦여름에 나타난다. 특히 1회기 방제를 놓치면 2회기 밀도가 증가해 출수가 줄기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 백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확량 감소로 직결된다.

최근 3년간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전북은 2021년 12마리, 2022년 343마리, 2023년 198마리, 2024년 795마리, 2025년 136마리로 나타났다. 충남은 2021년 99마리, 2022년 65마리, 2023년 330마리,

2024년 73마리, 2025년 192마리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최근 3년간 1회기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성충은 전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5월 중하순경부터 발생하며 점차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1회기성충

고 밝혔다. 올해는 전북과 충남 지역의 이화명나방 성충 50% 발생 시기가 전년 대비 약 3일 늦어져 각각 6월 1일과 6월 4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앞에서 부화한 어린 유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6월 4일(전북), 6월 10일(충남) 전후가 방제 적기로 제시됐다.

방제 시에는 반드시 벼에 등록된 약제를 선택하고 권장 사용량과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주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예찰과 발생 정보를 분석하고, 오는 7월에는 2회기 방제 적기 정보도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보령스마트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신제품 3종 출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령스마트팜"은 "농업경제" 등록 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새싹삼 밀크씨슬 홍삼플러스, 산양유 피쉬 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콜레우스 차전자피 분말 3종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령스마트팜"은 충남 보령 출신의 이행수 대표이사가 2022년 5월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대표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우리 것을 만들어 팔아보자'라는 신념으로 새싹인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인삼은 수소물과 LED 재배로 키워 농약 없이 재배한 웰빙 채소로, GAP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온가족 새싹삼 밀크씨슬 홍삼플러스, 산양유 피쉬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콜레우스 차전자피 분말

이 제품들은 자연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보령스마트팜은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K-웰빙푸드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령스마트팜 공식 홈페이지 www.bsmf.com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 041-931-1373 www.bsmf.com

